

강릉시, 도내 최초 '우리두레'

사용제 도입으로 농가 호응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도내 최초 농촌 현장에 새로운 임대방식으로 시범 도입한 '우리두레' 사용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두레 사용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수확철 농업기계 수요 집중에 따른 임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새롭게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1대 1농가 사용에서 1대 다(多)농가 사용으로 농업기계를 공동 예약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주식 콩, 들깨 탈곡기를 시범 기종으로 선정해 올해 수확 시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적기 영농실현과 임대비용 절감, 공동작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효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주문진을 삼교리는 17개 농가가 함께 우리두레 사용제를 적극 활용해 공동 영농에 참여하고 있다.

삼교리 농가들은 "필요 적기에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농작업 일정이 훨씬 수월해졌고, 임대료 절감효과도 크다."며, "무엇보다 이웃 간 협력과 소통이 늘어나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상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두레 사용제는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릉시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적기 영농실현 및 농가경영부담 절감과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더 나은 농업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캐릭터 굿즈 '해별이와 친구들'

인기몰이! 연말 신규 상품 출시 예정

동해시 대표 관광캐릭터인 '해별이와 친구들'을 활용한 굿즈 상품이 큰 인기를 얻으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망상관광안내소와 추암관광안내소내 전용 굿즈 판매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현재 안내소에서는 해별이와 친구들 굿즈 기존 제품(키링·인형·자석·볼펜 등)을 비롯해 2025년 신제품(스마트톡, 오픈너, 스노우볼, 레디백, 소주잔 세트 등) 포함 총 32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키링, 볼펜, 인형 시리즈가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해별이와 친구들'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어린이부터 MZ세대까지 폭넓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각각의 캐릭터가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를 모티프로 디자인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캐릭터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과 동해시의 추억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 감성적인 매력에 구매 만족도와 재방문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는 각종 지역축제 현장에서도 굿즈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캐릭터 상품이 관광 수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연말에 섬유향수 등 신규 굿즈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며 더욱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2025 강원 반도체 종합 박람회 원주서 첫 개막

강원도 반도체 산업의 첫 집결, 기관·교육·연구·기업 한자리에

심포지엄·전시·체험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박람회'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후원하는 「2025 강원 반도체 박람회」가 11월 6일(목) 오후 3시, 원주시청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신경호 교육감,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반도체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반도체 종합 박람회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과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여는 강원도의 반도체 혁신'을 주제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원주시청 앞 광장 및 지하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시청 광장에는 반도체 전주기 홍보

관을 비롯하여 공정별 기관 및 관내 주요 반도체 기업관이 마련됐다. 지하 1층에서는 「강원형 반도체 비전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연세대·강원대 등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 전시 부스, 시민이 직접 반도체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XR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산업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박람회가 원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원주가 강원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여 반도체 박람회의 개최지로서 가장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3년 전만 해도 원주는 반도체 산업과 거리가 먼 소위 반도체 불모지였으나, 민선8기 원주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의지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민선8기 원주시는 반도체 연구·검증·인재 양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반도체 교육과 테스트베드를 위한 세 개 기관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간다.

▲ 2024. 12. 의료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1차 연도 사업 완료)

▲ 2025. 4. 한국반도체교육원

▲ 2025. 10.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 2025. 11.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이 세 기관은 체험형 실습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반도체 부품·소재·신뢰성 검증을 통합 지원하는 '반도체 3대 테스트 인프라'로, 이를 통해 R&D지원, 실증, 인력 양성을 한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 지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한눈에 조망하고 산업·교육·연구 기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 산업의 가능성과 첨단 AI 반도체 도시 전환 플랫폼 확보의 장이 될 것"이라며 "원주에는 반도체 교육·검증·실증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AI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2025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평창군은 6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2025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행사를 도내의 기업,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 서울대GBST, KIST천연물연구소, 씨도피서사이언티픽코리아㈜가 공동 주관했으며, '그린바이오! 평창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강원으로'를 주제로, 기술과 투자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그린바이오 해외 비즈니스 전략(쥬에코원) ▲투자유치 우수사례(쥬퍼플러스) ▲곤충산업 비즈니스 기회(강원 곤충산업센터) 등 산업동향과 육성방향이 공유됐다.

김민석 기자

춘천 석사근린공원 정비사업 30일 준공

춘천 석사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석사동 757에 위치한 석사근린공원은 지난 7월부터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맨발길, 화장실 설치 등이 추진 중이다. 공정률은 이날 기준 90%로 오는 30일 준공 예정이다.

맨발길의 경우, 맨발걷기가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등 자연치유 효능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3년 시범조성한 맨발길과 연결해 총 350m의 순환

맨발길을 조성 중이다. 황토볼 지압 공간 계획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세족장, 편의시설도 신규로 설치하고 최적의 맨발길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전문협회와 함께 황토비율도 선정했다.

또 공원 내 호반체육관 입구는 노상방뇨에 따른 악취와 해충 발생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화장실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길 관리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추억감성여행



속초시는 11월 한 달간 체험형 테마 여행상품인 '2025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 - 추억감성여행'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설악여행자센터가 주관하며, '추억감성여행'을 주제로 레트로 감성과 설악동·속초 일대의 지역 자원을 결합한 1박 2일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팀당 약 15명 내외, 총 4개 팀(60명 규모)으로 구성되며, 참가 신청은 누리집(<https://seorakroad.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옛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콘셉트로 설악산과 속초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즐긴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바이마를 해

설 및 합경도 만두 빚기 체험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 ▲속초관광수산시장 방문 ▲설악산 단풍 트레킹 및 불교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은 설악동 일대 숙박단지와 연계해 진행돼, 지역 숙박·식음료 업체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 침체된 설악동 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1월의 속초는 가을 여행의 최적기이며, 설악동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추억 감성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설악동을 다시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